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이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김현영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e of Sexual Attitude, Gender Stereotype and Self-Esteem on Gender Egalitarianism in Nursing Student

Hyun 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이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31일까지 경북 G시에 위치한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174명을 대상으로 서면동의를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양성평등의식은 성별($t=-3.091$, $p=.002$)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양성평등의식은 성고정관념($r=-.811$, $p<.001$)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자아존중감($r=.345$, $p<.001$)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고정관념($\beta=-.787$, $p<.001$)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5.4%였다.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고정관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sexual attitudes, sexual stereotypes, and self-esteem on gender egalitarianism among nursing students. This study was based on a questionnaire administered to a total of 174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5 to November 31, 2020.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WIN 18.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gender egalitarianism of the subjects differed statistically according to sex ($t=-3.091$, $p=.002$). Gender egalitarianism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gender stereotype ($r=-.811$, $p<.001$) an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r=.345$, $p<.001$). Gender stereotypes ($\beta=-.787$, $p<.001$) we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in the gender egalitarianism among nursing students,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65.4%. Hence, educational measures should be taken to reduce gender stereotypes to improve the gender equality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Sexual Attitude, Gender Stereotype, Self-Esteem, Gender Egalitarianism, Nursing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Hyun Young Kim(Kyungwoon Univ.)

email: actoduto@hanmail.net

Received March 19, 2021

Revised April 21, 2021

Accepted May 7, 2021

Published May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현대사회는 어느 특정 성의 발달된 능력보다는 성적 구별 없이 각자 자신이 갖고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추구하게 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1]. 현대여성들은 주부와 아내, 어머니로서의 여성정체성과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들이 남녀 파트너십을 통해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개인적인 삶이나 국가적인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2]. 그러나 한국사회는 현재에도 여전히 심각한 성차별이 존재한다. 2017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여성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를 보면, OECD 27개 조사국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경제활동 참여율 격차(20.5%p), 남녀 임금 격차(36.7%)가 최하위였으며, 기업 이사회 여성 점유율도 2.1%로 전체 평균(21.8%)에 비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기 때문이다[3]. 또한 2020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에서도 여성들의 정치적 권리와 대표성에 관련된 지표의 순위가 낮아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149개국 중 115위로 발표하였다[4].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19세 이상 남편 중 단 17.8%만이 부부의 공평한 가사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1]. 이러한 지표들 통해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의식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들이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여 성 차별이 없는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은 생애주기에서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해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고, 생애 중 가장 다양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아정체감, 인생관, 가치관 등을 정립하여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기이므로 중·고등학교를 통해 기성세대에 의해 사회화된 고정관념을 재조정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정체성이나 양성평등의식은 개인적인 후기 성인기와 우리 사회 전체의 성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1]. 그러므로 대학생 시기에 건전한 양성평등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간호대학생은 미래에 간호사로서 다양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견 없이 동등한 간호 및 지지를 제공해야 하므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올바른 성격체성과 양성평등의식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하므로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 정도와 선행연구들에서의 영향요인인 성태도, 성고정관념, 그리고 정신건강 요소인 자아존중감과 관계를 파악하여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여성개발원(2002)에 의하면, 양성평등의식(Gender equalitarianism)은 여성 또는 남성에 대한 능력이나 역할 등에 대하여 성차별적 의식을 가지지 않고, 특정 성의 편견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정의하며, 나아가 여성의 인권 또는 권리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하지 않고 사회의 성차별을 수정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하였다[5]. 현대사회는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의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가부장적 권위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문화에서 벗어나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면서 양성평등의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있다[6]. 또한,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양성평등의식의 향상은 중요한 발달과업이 되었으며, 장차 사회구성원들의 건강문제 해결 및 증진을 담당하게 될 간호대학생은 양성평등적 성역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태도는 성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개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관점을 의미하며, 성에 대한 일관성 있는 사고, 감정 및 행동양식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성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된다[7]. 개인의 성태도는 사회구조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으며, 한번 형성된 성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고 그 사회의 성문화와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줄수 있다[8].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성태도의 긍정적 수준이 높아지고 덜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성태도와 양성평등의식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7]. 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성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성고정관념은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신체적, 사회적 혹은 정신적 측면이 다르다고 미리 예측하고 모든 행동을 규정함으로써 성에 대한 인식의 일반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9]. 이러한 성고정관념은 사회문화적 요구를 전수하는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 반응을 제한하거나 융통성 없는 반응으로 개

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활동을 방해하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분지을 때, 남성성에 비해 여성의 역할이 더 낮게 평가하고 불리하게 작용되어 사회구성원 개인의 자아성취나 사회공헌의 기회를 박탈하고,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함에 있어 장애가 되어왔다[10]. 선행연구에 의하면, 성고정관념은 성적 자기주장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쳐 양성평등의식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11]. Kang 등(200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성평등의식이 유아의 성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고정관념은 양성평등의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6].

Rog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이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며 가치있다는 개인적인 신념으로 자신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라고 하였다[12]. 자기 스스로를 가치있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면 양성평등의식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Yoon 등(2017)[6]과 Noh 등(2013)[14]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양성평등의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양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선행연구를 통해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는 요인들, 즉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은 간호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 향상에도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대상자가 아동이나 중고등학생들로 집중된 연구가 대부분이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양성평등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의 정도를 파악하고, 중요한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 양성평등의식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의 차이를 알아본다.
- 3)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과 양성평등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 양성평등의식 정도와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상북도 G도시에 위치한 1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학생을 편의 모집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α 는 .05, 검정력은 .95, 효과크기는 .15(medium), 독립변수 10개로 산출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수는 172명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해 총 200부를 배포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지 않거나 무성의하게 작성한 28부를 제외한 174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성태도(Sexual Attitude)

성태도는 성에 대한 가치관, 생각 등 성에 대한 개인의 내적 신념의 표현을 의미한다[15].

성태도 측정도구는 Ho(2009)[16]가 국내 선행연구에서 제작하여 사용한 도구를 Yu(2015)[15]가 다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2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Ho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1~.93이었고, Yu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7였으며[15], 본 연구의 Cronbach's α =.80이었다.

2.3.2 성고정관념(Gender Stereotypes)

성고정관념은 남성이나 여성을 인지 또는 평가할 때 그의 개인적 특성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단지 생물학적인 성에 의거하여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녀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상대적으로 경직되고 과잉단순화된 개념을 의미한다[10].

성고정관념 측정도구는 Kim(1993)[17]이 구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3문항으로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고정관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 였으며[17],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2.3.3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William James(1890)는 한 개인에 대한 가치감은 가정된 잠재력에 비하여 실제로 얻게 되는 성취 비율로 결정된다고 하였다[18].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Coopersmith(1967)가 제작한 Self-esteem Inventory를 한국어 판으로 Kang 등(1986)[19]이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ang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 이었으며[19],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2.3.4 양성평등의식(Gender Egalitarianism)

양성평등의식은 양성 중 어느 특정 성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20].

양성평등의식 측정도구는 2002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제작한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용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60개 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의 연구(2007)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 = .96$ 이었으며[21],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7$ 이었다.

2.4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들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된 간호학과와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과 동의를 구하였고, 담당교수 입회 하에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개인정보의 보호, 익명을 보장한 비밀유지, 설문 중 중도 참여 철회 등에 대해 사전 설명하였다. 오로지 연구목적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에 한해서 소정의 답례를 제공한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 양성평등의식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 양성평등의식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로 검증하였다.
4. 대상자의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 양성평등의식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Enter 방식의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30명(17.2%), 여자 144명(82.8%)이었고, 연령은 만18-19가 56명(32.2%)만 20~21세가 65명(37.4%), 만22세 이상이 53명(30.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174)

Variables	Category	n(%)
Sex	Male	30(17.2)
	Female	144(82.8)
Age	18-19	56(32.2)
	20-21	65(37.4)
	more than 22	53(30.5)
Family State	Extened Family	31(17.8)
	Nuclear Family	113(64.9)
	Single-parent Family	17(9.8)
	Grandparents Fmaily	4(2.3)
	etc.	9(5.2)
Economic Conditions	High	7(4.0)
	Medium-high	38(21.8)
	Middle	110(63.2)
	Middle & Low	17(9.8)
Grade Level	Low	2(1.1)
	First	46(26.4)
	Second	79(45.4)
	Third	19(10.9)
Residential Type	Fourth	30(17.2)
	One's Home	132(75.9)
	Boarding House	1(0.6)
	Apart from one's Family	24(13.8)
	Dormitory	17(9.8)

이었다. 가족형태는 확대가족 31명(17.8%), 핵가족이 113명(64.9%), 한부모가족 17(9.8%), 조부모가족 4명(2.3%)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46명(26.4%), 2학년 79명(45.5%), 3학년 19명(10.9%), 4학년 30명(17.2%)이었다. 거주형태는 자택 132명(75.9%), 하숙 1명(0.6%), 자취 24명(13.8%), 기숙사 17명(9.8%)이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 양성평등의식의 정도

대상자의 성태도는 평균 3.13±.33점이었고, 성고정관념은 평균 1.75±.61점, 자아존중감은 평균 3.53±.54점, 양성평등의식은 평균 3.42±.40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gree of Sexual Attitude, Gender Stereotypes, Self-Esteem and Gender Egalitarianism (N=174)

Categories	Min	Max	Mean±SD
sexual attitude	2.00	3.90	3.13±0.33
Gender Stereotypes	1.00	3.48	1.75±0.61
Self-Esteem	1.48	4.84	3.53±0.54
Gender Egalitarianism	2.13	3.92	3.42±0.40

Table 3. Differences in Sexual Attitude, Gender Stereotypes, Self-Esteem and Gender Egalitarianis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4)

Variables	Category	Sexual Attitude		Gender Stereotypes		Self-Esteem		Gender Egalitarianism	
		M±SD	F or t (p)	M±SD	F or t (p)	M±SD	F or t (p)	M±SD	F or t (p)
Sex	Male	3.12±.34	-0.184 (.855)	2.07±.60	3.324 (.001)	3.49±.40	-0.439 (.661)	3.22±.40	-3.091 (.002)
	Female	3.13±.33		1.68±.59		3.54±.39		3.46±.39	
Age	18-19(a)	3.05±.41	2.220 (.112)	1.55±.52	5.002 (.008)	3.67±.48	2.739 (.067)	3.50±.38	1.691 (.187)
	20-21(b)	3.17±.27		1.78±.56		3.44±.52		3.40±.39	
	more than 22(c)	3.16±.29		1.91±.70		3.51±.60		3.36±.43	
Family State	Extened Family	3.09±.36	1.271 (.283)	1.68±.64	1.925 (.108)	3.45±.63	0.802 (.525)	3.41±.43	1.784 (.134)
	Nuclear Family	3.12±.32		1.71±.53		3.58±.51		3.46±.36	
	Single-parent Family	3.17±.33		1.80±.76		3.50±.59		3.41±.42	
	Grandparents Fmily etc.	3.10±.05		2.20±.84		3.20±.25		3.14±.43	
Economic Conditions	High(a)	3.24±.15	1.035 (.391)	1.95±.95	1.613 (.173)	3.45±.57	8.780 (<.001)	3.08±.78	1.899 (.113)
	Medium-high(b)	3.20±.31		1.64±.61		3.85±.55		3.43±.39	
	Middle(c)	3.10±.32		1.72±.57		3.51±.47		3.46±.36	
	Middle & Low(d)	3.14±.36		2.04±.63		3.17±.40		3.32±.42	
	Low(e)	3.00±.111		2.00±.100		2.40±.130		3.32±.57	
Grade Level	First	3.05±.39	1.807 (.148)	1.57±.49	2.011 (.114)	3.64±.44	2.765 (.044)	3.49±.34	1.162 (.326)
	Second	3.15±.30		1.79±.60		3.46±.52		3.39±.41	
	Third	3.12±.39		1.92±.63		3.35±.71		3.32±.47	
	Fourth	3.22±.26		1.80±.72		3.69±.56		3.47±.42	
Residential Type	One's Home	3.12±.34	1.684 (.172)	1.75±.60	0.923 (.431)	3.54±.55	0.298 (.827)	3.41±.41	1.921 (.128)
	Boarding House	2.52±.00		2.45±.00		3.04±.00		2.62±.00	
	Apart from one's Family	3.21±.28		1.64±.61		3.53±.56		3.52±.31	
	Dormitory	3.10±.32		1.75±.69		3.51±.41		3.40±.4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 및 양성평등의식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과를 보면, 남자인 경우(t=3.324, p=.001), 연령이 높을수록(F=5.002, p=.008) 성고정관념이 높은 것을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은 경제적인 상태가 좋을수록(F=8.780, p<.001), 학년(F=2.765, p=.044)에 따라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양성평등의식은 성별(t=-3.091, 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여자(3.46±.39점)가 남자(3.22±.40점)보다 양성평등의식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태도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가 없었다(Table 3).

3.4 대상자의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과 양성평등인식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양성평등인식은 성고정관념(r=-.811, p<.001)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r=.345, p<.001)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고정관념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인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고정관념과 자아존중감은 음의 상관관계(r=-.316, p<.001)를 나타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of Sexual Attitude, Gender Stereotypes, Self-Esteem and Gender Egalitarianism

(N=174)

Categories	Sexual Attitude	Gender Stereotypes	Self-Esteem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	1.00			
Gender Stereotypes	-.093 (.222)	1.00		
Self-Esteem	.014 (.853)	-.316** (<.001)	1.00	
Gender Egalitarianism	.103 (.175)	-.811** (<.001)	.345** (<.001)	1.00

Table 5. Factors affecting the subject's Egalitarianism

(N=174)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4.157	.195		21.334	<.001		
Sex (Ref:female=0)	.037	.049	.035	.751	.454	.935	1.069
Gender Stereotypes	-.530	.033	-.787	-15.721	<.001	.797	1.255
Self-Esteem	.030	.036	.041	.834	.405	.847	1.180

Adj. R² = .654, F=110.202, p<.001

Ref=Reference

3.5 대상자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 및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을 예측변수로 투입하였고, 투입 전에 명목변수인 성별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입력 방식으로 회귀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검정 결과, 잔차의 독립성 검증인 Durbin-Watson 지수가 2.116으로 2에 가까워 잔차 간 독립성이 유지되었고, 표준화된 잔차의 범위는 -2.747~2.851로 나타나 잔차의 등분산성을 만족하였다. cook's distance의 최대값이 0.086이므로 이상점은 없었고, 정규선에 가깝게 분포하여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797~.935로 .01 이상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VIF는 1.069~1.255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었으므로 회귀모형에 적합하였다(F=110.282, p<.001).

회귀분석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은 성고정관념(β = -.787, p<.001)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65.4%였다.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은 성고정관념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과 양성평등의식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성태도는 평균 3.13±.33점으로 비교적 개방적인 것을 나타냈으며, 서울과 경기도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의 연구(2004) 3.09점[24],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o 등(2019)[23]의 연구 3.43 점과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보건과 비보건 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017)의 연구 5점 만점에 4.01점, 안산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Wee(2014)의 연구 4점 만점에 3.36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낮았으며,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2015)[22]의 연구에서의 3.02점, 강원도와 충청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ong 등(2013)[24]의 연구 2.9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지역 및 편의표집상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모집단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표적집단을 잘 선정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6]. 최근에는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 개방적 성문화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현재의 대학생들은 과거에 비해 더 개방적인 성태도

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22].

대상자의 성고정관념은 $1.75 \pm .61$ 점으로 비교적 성고정관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등(2017)[25]의 연구에서는 2.02점과 Ahn 등(2001)의 연구에서는 2.77점, Nam 등(2005)의 연구에서는 남녀 각각 3.12점, 2.73점이었으며[10],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n 등(2017)[6]의 연구에서는 2.20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보다 비교적 성고정관념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2016)[10]의 연구에서와 같이 간호대학생이 일반대학생보다 성고정관념이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대학생들의 성고정관념이 낮아진 것은 최근 들어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역할의 확대에 의한 사회적 의식변화와 더불어 간호대학생은 성고정관념이 높은 남학생[6, 10, 25]보다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26], 여성 중심의 직업인 간호사를 선택한 남학생도 다른 전공을 선택한 남성보다 성 구분을 초월하여 직업을 선택할 만큼 성고정관념이 낮은 결과라고 판단된다[10].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3.53 \pm .54$ 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Moon 등(2020)[27]의 연구 5점 만점에 3.58점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Lee 등(2017)[28]의 연구 3.72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Yang(2020)[29]의 연구 3.46점, Kim 등(2015)[30]의 연구 2.89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렇게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의 점수가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전공 만족도나 성적 등 자신의 과업 성취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는데[28-30], 대상자의 이러한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전공 만족도나 과업 성취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양성평등의식은 $3.42 \pm .40$ 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Moon 등(2020)[27]의 연구에서는 3.44점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Kim 등(2017)[1]의 연구 3.14점, Lee 등(2013)[31]의 연구 3.1점, An(2014)[32]의 연구 3.17점, Kim 등(2018)과 Jeong(2015)의 연구[26]에서는 1.97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양성평등의식 점수가 낮았다. 제시된 연구결과들은 차이가 있었으나 Kim 등(2018)과 Jeong(2015)의 연구를 제외한 모든 연구결과를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은 보통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1].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 점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연구 대상자들이 특정 대학에 한정되어 있거나 편향적

표본 추출의 가능성이 있어 전체적인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26].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 및 양성평등의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태도는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없었고, 성별이나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24]. 성고정관념은 성별($t=3.324, p=.001$)과 연령($F=5.002, p=.008$)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인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성고정관념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25]. 자아존중감은 학년($F=2.765, p=.044$)과 경제상태($F=8.780,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경제적 상태가 좋을수록, 학년은 비록 사후분석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학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Moon 등(2020)[27]의 연구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으나 다른 선행연구들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28, 29]. 차후 연구목적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양성평등의식은 성별($t=-3.091, p=.002$)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양성평등의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였다[1, 6, 24, 25, 27]. 또한 학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선행연구들과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1, 6, 27], 그러나 Lee 등(2013)[31]의 연구와 같이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구들도 있으므로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 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양성평등의식 점수를 조사하였는데 다른 전공계열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보다 양성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전공 특성도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6]. 따라서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별이나 전공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양성평등의식과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고정관념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r=-.811, p<.001$), 자아존중감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345, p<.001$). 반면에 성태도는 양성평등의식과 상관성이 없었다.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고, 성고정관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양성평등의식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남녀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한 Noh 등(2013)의 연구와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n 등(2017)등의 연구,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Moon 등(2020)의 연구, 여성 집단에서 자아개념이나 자존감이 높을수록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보인 Ossana 등(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6, 14, 26, 27, 33]. 자아존중감은 건전한 대인관계 및 성격 발달에 중요한 토대가 되며 자아정체성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요인이므로 성인기로 이행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나와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함양하는 구체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27].

양성평등의식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성고정관념은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beta = -.787, p < .001$)으로 65.4% 설명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Yoon 등(2017)[6]의 연구, Byun (2019)[34]의 연구와 일치한다. 한국사회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사회적 역할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성고정관념에서 서서히 탈피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한 양성평등의식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못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35]. 사회적으로 남성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남성이나 성고정관념이 높은 남성의 경우는 자신의 남성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을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36] 이성교제나 부부관계에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6]. 그러므로 성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여 양성평등으로 갈 수 있도록 사회나 직장에서의 여성 지위의 향상, 가정에서의 평등한 성역할 인식, 불평등에 대한 법적 완화 등 사회문화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4]. 또한, 성고정관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적 중재가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 후기부터 성인 전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을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성고정관념을 감소시키고 양성평등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34].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이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 하였다.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양성평등의식은 성고정관념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자아존중감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이들의 양성평등의식

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성고정관념으로 설명력은 65.4%였다. 따라서 성고정관념이 증가할수록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판단된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대상자를 대하고 간호를 제공해야 하므로 양성평등의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고정관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함께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일개 대학에 국한하여 편의모집하였으므로 일반화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간호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의 정도와 영향요인을 확인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성별이나 자아존중감이 양성평등의식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기존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J. H. Kim, G. H. Choi, B. S. Park, S. J. Yoon, H. J.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Self-esteem, and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24, No.3, pp.171-178, 2017
DOI: <https://doi.org/10.5953/JMJH.2017.24.3.171>
- [2] E. J. Yeun, H. J. Kwon, H. J. Kim, "Subjectiv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 Application of Q-methodology",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Vol.42, No.3, pp.342-350, 2012
DOI: <http://dx.doi.org/10.4040/ikan.2012.42.3.342>
- [3] M. H. Jang, Korean Social Trends 2018, *Statistics Korea*, pp.326-332, 2018, <http://sri.kostat.go.kr>
- [4] H. J. Kim, *International Statistics: Trends and Analysis*, Vol.11, pp.2-7, 2020, <http://www.nars.go.kr>
- [5] S. H. Park,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the Perceptions of Marriage of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Health & Welfare*, Vol.21, No.3, pp.87-106, 2019
DOI: <https://doi.org/10.23948/kshw.2019.09.21.3.87>
- [6] S. J. Yoon, E. K. Byun, "Factors Affecting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f University Students -The Graduates of Social Welfare", *Journal of Fish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29, No.1, pp.90-100, 2017
DOI: <http://dx.doi.org/10.13000/JFMSE.2017.29.1.90>
- [7] J. A. Park, *Effects of Gender equality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on Sexual Attitude*,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 Education The

-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2019
- [8] Y. S. Kang, *A Study on Sexual Attitudes, Sexual Knowledge,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Dongyang University, Pusan, Korea, 2016
- [9] D. H. Sul, Marriage migrants of Korea. *KMA*, pp.1-17, 2006
- [10] Y. K. Lee, M. A. Han, J. Park, S. Y. Ryu, S. W. Choi, "The Associations between Gender-stereotypes and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among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Maternity Child Health*, Vol.20, No.1, pp.24-35, 2016
DOI: <https://doi.org/10.21896/jksmch.2016.20.1.24>
- [11] G. Y. Cho, Y. H. Kim, "Factors influencingsexual assertiveness of wome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6, No.5, pp.2795-2806, 2014
- [12]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13] M. H. Kim, *The Relation of Elementary Student's gender Egalitarianism and self esteem*,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Co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on, Korea, 2006
- [14] M. I. Noh, Y. S. Park, "Cadets' gender egalitarianism, self-esteem and collective self-esteem",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Vol.31, No.2, pp.91-101, 2013
- [15] Y. H. Yu, *A Study on the Love Styles and Sexual Attitudesof th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Graduate School at the Ulsan University, Ulsan, Korea, 2015.
- [16] S. M. Ho,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at the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2009
- [17] D. I.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stereotypes and authoritarianism", *Social Science Review*, Vol.63, No.2, pp.45-56, 1993.
<http://www.riss.kr.libproxy.knu.ac.kr/link?id=A75195624>
- [18] Y. H. Lee,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f college students and college life adaptation*,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Christian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at the Hanil Jangshin University, Korea, 2016.
- [19] J. G. Kang, *Effects of self-concept, career-consciousness, and academic performance on occupational irregularitie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Graduate School at the Seoul University, Korea, 1986.
- [20] D. K. Yang, J. I. Kim, "The Effects of Gender Egalitarianism On Perceived Seriousness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ly Harassing Behaviors", *The Women's Studies*, Vol.91, No.2, pp.73-96, 2016.
- [21] W. K. Kim, *A Study on Gender Equality and Gender Awareness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at the Dong-A University, Pusan, Korea, 2007.
- [22] N. H. Kim, Y. J. Park, H. S. Jeong,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that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Vol.7, No.2, pp.17-42, 2015
<http://lps3.www.earticle.net.libproxy.knu.ac.kr/Article/A289699>
- [23] M. J. Jo, W. H. Jun, "Influencing Factors of Sexual Attitude, Other-Compassion and Attitudes toward Unwed Mother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9, No.5, pp.94-103, 2019
DOI: <https://doi.org/10.5392/JKCA.2019.19.05.094>
- [24] S. G. Kim. "A Study on Sexual Attitude, Autonomy and Harassment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3, pp.223-231, 2017.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98233>
- [25] Y. S. Choi, E. H. Lee, E. J. Lee, "Self-esteem, Gender-stereotype Activation, Violence Perception, and Date Violence Coping Types among College Students",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21 No.1, pp23-33, 2017
- [26] J. K. Cho, "A Study on the Actual Status of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d Gender Equality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pp.1-218, 2018
<http://www.seoulwomen.or.kr>
- [27] J. H. Moon, S. E. Choi, "Egalitarianism, Self-Esteem, Sexual Communication on Sexual Autonomy In College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24, pp.1371-1384. 2020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20.20.24.1371>
- [28] S. Y. Lee, J. S. Lee, Y. Y. Kim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5, pp.401-409,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5.401>
- [29] H. J. Yang,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steem,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y on Professional Self-concept in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11, pp.161-170,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11.161>
- [30] S. Y. Kim, S. Y. Lim, H. M. Choi,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in Clinical Practice,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1, No.4, pp.59-64, 2015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15.1.4.59>

- [31] Y. R. Lee, K. M. Kim, S. E. Choi, "Awareness Levels and Influencing Factors of Sexual Harassment and Gender Egalitarianis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Community Health Nursing*, Vol.24 No.1, pp.40-50, 2013
DOI: <http://dx.doi.org/10.12799/jkachn.2013.24.1.40>
- [32] B. K. Kim, H. K. Kim, A. Y. Lee, T. W. Kim, J. H. Park, D. U. Kim, "The Effect of Equality of Both sexes and Self-esteem on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oil & applied science*, Vol.35, No.3, pp.768-777, 2018
DOI: <http://dx.doi.org/10.12925/jkocs.2018.35.3.768>
- [33] Ossana, Shelly. M. Helms, Janet & Leonard, Mary M, "Do womanist identity attitudes influence college women's self-esteem and perceptions of environmental bia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70, pp.402, 1992
- [34] E. K. Byun, "Factors affecting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f nursing college femal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11, pp.661-671, 2019
DOI: <http://dx.doi.org/10.35873/aimahs.2019.9.11.059>
- [35] S. J. Kim, "Factors affecting gender-role stereotyp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44, No.1, pp.89-111, 2013
- [36] Brines, Julie "Economic dependency,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10, No.3, pp.652-688, 1994

김 현 영(Hyun-Young Kim)

[정회원]



- 2004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1년 8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수료)
- 2014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여성건강간호학, 성인간호학